

“벗어나는 관문이 없다면 목마는 칼날 위로 달릴 것이고”

조계종 종정 법전 스님 법어

살아서 천상(天上)의 즐거움을 부러워하지 않고 죽어서도 지옥(地獄)을 두려워하지 않는 노승(老僧)이 오늘 아침 육도(六道)의 관문(關門)을 열고 환귀본처(還歸本處)하니 이것이 활중득사(活中得死)입니까. 사중득활(死中得活)입니까? 활중득사(活中得死)라고 한다면 반야영검(般若靈劍)을 면하기 어렵고 사중득활(死中得活)이라고 하면 불조(佛祖)도 신명(身命)을 잃을 것입니다.

어느 곳을 가야 투탈생사(脫脫生死)하고 불조(佛祖)의 신명(身命) 잃는 것을 막을 수 있었습니까? 구(求)함이 있다면 석가(釋迦)는 낙질(落箭)하고 가섭(迦葉)의 패괘(敗闕)은 깊어질 것입니다. 벗어나는 관문(關門)이 없다면 목마(木馬)는 칼날 위로 달릴

것이고 석녀(石女)는 불 속에 몸을 감추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 산중(山中)에 노승(老僧)이 몸을 감추고 머리로 피라도 없는 주장자를 한번 치니 허공(虛空)의 빠는 부러지고 오취중생(五趣衆生)이 금대(金臺)에 오릅니다. 이것이 오고 감이 없는 활계(活計)입니까? 시방법계(十方方法) 생명들이 목숨을 잃는 기략(機略)입니까? 회마(會麼) 알겠는가? 재질지간가측(裁織之間可測)이리요 무쇠 끊는 기를 어떻게 측량하리요 돈개천안망능구(頓開千眼眼能窺)로다 천개의 눈을 단박 뜨더라도 엿볼 수 없습니다.



영결식순 사회 : 범하 스님

- 명종(5타)
- 개회
- 삼귀의
- 반야심경
- 영결법요(원명 스님 정음 스님)
- 행장(원로회의 수석부의장 종산 스님)
- 추모인정(속성법문)
- 영결사(원로회의 의장 도원 스님)
- 법어(법전 종정예하)
- 조사: 총무원장 중앙총회의장 수좌 대표 전국신도대표 내빈 대표
- 조가(오느름관현의단, 정을 스님, 보리수 합장단)
- 헌화: 문중대표 종단대표(종정 스님, 호상 스님, 원로의장, 총무원장, 종회의장, 수좌대표 분사주지 대표) 내빈대표 신도대표
- 문중대표 인사말
- 사홍서원

■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 조사 (요약) “꽃이 피면 꽃으로 오셔서 다시 한번 가르침 베푸소서”

선교겸전(禪教兼全)의 대종장(大宗匠)이며 수행(修行)과 포교(布教)의 귀감(龜鑑)이신 관음당(觀音堂) 지안(智眼)큰스님. 진성(眞性)은 무성(無性)이라 생사(生死)가 없고, 진불(眞佛)은 무형(無形)이라 거래(來來)가 없다했습니다. 이 도리(道理)를 투득(透得)한 자는 얼을 위를 달리고 칼날 위를 걸어도 중횡무진(縱橫無盡)으로 자유자재(自由自在)하니 이것이 바로 살아서 온 세상의 시비를 모두 끊어버리고 천개의 눈을 단박에 뜬다는 조사(祖師)의 행화(行化)입니다.

오늘 큰스님께서 문득 세연(世緣)을 거두신 것 또한 숨 한번 멈추는 것으로 생사(生死)를 초월(超越)하고 시비(是非)를 발거(拔去)하여 본분진상(本分眞相)을 보이신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눈앞에 드러난 현성공안(現成公案)의 깨닫지 못한 우치중(愚癡衆)은 건곤(乾坤)이 운행(運行)을 멈춘 듯 경악(驚愕)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큰스님께서 천년만년(千年萬年) 더 오래 제세(在世)하면서 교편(教鞭)을 들어 미망(迷妄)을 일깨우고, 염화(拈華)로써 사견(邪見)을 척파(斥破)해 줄 것으로 믿었더니 그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욕심인지 오늘에야 알았기 때문입니다.

(중략)

실로 스님은 진지(眞摯)한 수행자(修行者)의 표상(表象)이요, 교학(敎學)의 수령(首領)이자 포교(布教)의 선구자(先驅者)였습니다. 한국불교 역사(歷史)의 대종(大衆) 가운데 이렇듯 스님처럼 선교(禪敎)를 겸전(兼全)하고 수행(修行)과 전법(傳法)을 한 몸으로 감당한 분은 참으로 드물었습니다. 그러므로 종도(宗徒)들로서는 큰스님의 이 뜻을 듣는 것만으로도 맹구우목(盲龜遇木)의 법연(法緣)이라며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종도(宗徒)들은 오늘 큰스님을 영결(永訣)하면서 천추(千秋)의 후회(後悔)가 되는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왜 진작 큰스님을 변듯한 회상(會上)으로 모셔서 더 많은 감로법문(甘露法門)을 청하지 못했는가 하는 아쉬움입니다. 이것은 현대 한국불교가 외적팽창(外的膨脹)에만 몰두하고 분열쟁투(分裂爭鬪)만 일삼다가 정자(正法)계승(繼承)과 선양(宣揚)을 게을리 한데 대한 가슴앓이기도 합니다.

큰스님. 그래서 오늘 저희들은 무례(無禮)를 무릅쓰고 청(請)하옵게 말씀이 있습니다. 경(經)에 이르기를 대비천제(大悲闡提)는 중생(衆生)을 구제하기 위해 원생(願生)으로 태어났다 했습니다. 하오니 큰스님께서도 피모각재입전래(被毛角載入塵來)하여 우발라화화리개(優鉢羅華火裏開)하는 도리를 보여 주시옵소서. 이는 오직 큰스님 생전(生前)에 못다 배운 진법(眞法)을 다시 배워 무지몽매(無知蒙昧)를 없애려는 기특한 마음에서입니다.

큰스님. 오늘 여기 모인 사부대중(四部大衆)의 회원(希願)을 들으시거든 꽃이 피면 꽃으로 오시고, 바람이 불면 바람으로 오셔서 다시 한번 가르침을 베풀어주소서. 환귀사바(還歸娑婆)하시어 무명중생(無明衆生)의 귀와 눈을 열어주소서. 삼가 종도(宗徒)들은 향(香)을 피워 합장(合掌)하고 감청(敬請)하나이다.



■ 조계종 원로의장 도원 스님 영결사 (요약)

“자애로운 진용과 사자후 어디서 뵈고 들어야 합니까?”

관음 큰스님! 어느 세계(世界)로 출리(出離)하셔서 이처럼 공적(空寂)하고 적막(寂寞)합니까? 적요허광(寂寥虛曠)하여 형명(形名)으로도 진용(眞容)을 비울 수가 없고, 유심(有心)으로도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생사(生死)자재(自在)한 기용(機用)을 갖춘 스님께서 이처럼 깊고 고요한 진상(眞相)을 이루니 얼마나 즐거우십니까? 세연(世緣)을 통(通)해 어깨에 지고 있던 천만가지 짐을 놓아버리고, 염매(緣)에서 벗어나니 얼마나 자유(自由)롭습니까? 스님이 이룬 적멸(寂滅)의 분상(分上)에는 불조(佛祖)의 염매(緣)도 범성(凡聖)의 분별(分別)도 없는데 어찌 나고 죽음의 슬픔이 있겠습니까? 스님께서서는 적멸(寂滅)의 즐거움이 되는 말후(末後) 일구(一畝)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스님이 무생법계(無生法界)에 태어나셔서 사바(娑婆)에 머무신 것은 법신(法身)의 묘용(妙用)을 보인 것입니다. 큰스님! 여기 모인 사부대중(四部大衆)을 위(爲)해 평소(平素)에 소려(所慮) 부르던, 어지럽게 비바람이 일고 우뢰와 번개가 비오듯 한 격외(格外)의 機를 한번 보이십시오. (중략)

스님의 불언(不言)의 敎(教)와 무위(無爲)의 사(事)의 자비(慈悲)스런 교화(敎化)는 산(山)과 바다를 이루었고 즐락(娑囉)의 지혜(智慧)는 만물(萬物)도 감득(感得)케 하였습니다. 눈 먼자는 보고 싶은 것을 보게 하였고, 농자(農者)는 귀가 열려 듣고 싶은 소리를 들었으며, 꽃망울을 머금은 꽃들은 우주(宇宙)의 신비(神祕)를 열게 한 뛰어난 포교사(布敎師)였습니다. (중략) 여러분 오늘 큰스님께서 보이신 적멸(寂滅)의 진상(眞相)이 즐거움이 되고, 자유(自由)스러움이 됨을 깨달았습니까? 깨달았다면 하늘의 관문(關門)을 열어 짓하고 지축(地軸)을 흔들 것이며, 못 깨달았다면 생사(生死)에 얽매어 은산철벽(銀山鐵壁)을 맞이할 것입니다. 이것이 노사(老師)가 우리에게 남긴 최후(最後)의 설법(設法)입니다.



관음 스님의 빈소가 마련된 직지사 설법전은 큰스님을 추모하는 불자들의 발길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직지사 최후(最後) 스님이 총무원장 법장 스님과 관음 스님을 추모하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 왼쪽 두번째부터 오른쪽으로 녹원·법당·법장 스님. 직지사=배지선 기자

관음 스님 입적 관련기사 buddhanews.com서 보세요

종회의장·전국 선원수좌회 등 조사 잇따라... 각 정당서도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 뿐 아니라 중앙총회의장 지하 스님, 전국선원수좌회 대표 한주 스님, 중앙신도회 백창기 회장 등이 관음 스님의 원적을 애도하는 조사를 발표했다. 지하 스님은 조사를 통해 “그 크신 학문(學問)과 식견(識見)을 바탕으로 이 땅 불교의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하실 일이 많으신데 벌써 원적(圓寂)에 드시다니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라고 밝혔다. 한주 스님은 “삼통(三統)의 찬 기운 사라지고 만상(萬象)이 불기운을 찬탈할 즈음에, 대종사의 장강설법(長江設法)을 기다렸는데 홀연히 묘체(妙體)를 거두어 버리시니 그저 답답하고 슬픈 마음뿐입니다”라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백창기 회장은 “스님은 스님의 ‘있음’만으로 우리 불교의 든든한 버팀목이자

자존심”이라며 “스님이 지극한 중생사랑으로 다시 우리 곁으로 오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표현했다. 이외에도 정동영 열린우리당 의장, 민주당 연동회, 조윤제 청와대 불자회장도 각각 조사를 발표했다. 정동영 의장은 조사에서 관음 스님을 “어지러운 세상을 살아가는 사대부중에 게는 세상시름을 잊게 할 시원한 큰 나무

그늘이었고, 지칠 때 기댈 수 있는 커다란 언덕”이라고 표현하며 원적을 아쉬워했고, 연동회는 “환갑의 나이에도 친척사 무문관에서 6년여 동안이나 두문불출 수 행하시며 대중들에게 ‘생황이 곧 참선이 돼야 한다’고 설한 가르침은 지금도 많은 국민과 사부대중에게 귀감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조윤제 의장은 “큰스님의 가르침을 따라 종단은 물론 민족과 국가 나아가 인류의 화합과 발전에 이바지하는 대승보살의 길로 매진하겠다”라고 다짐했다. 남동우 기자

현대불교신문 창간 10주년 2004 부다피아 SUMMER CAMP

미국 하와이 어린이 청소년 영어연수 및 문화체험

현대불교신문사는 창간10주년을 맞아 100년전 이민의 첫발을 내디딘 미국 하와이에서 어린이 청소년 영어연수 및 역사, 문화체험 캠프를 개최합니다. 2004 부다피아 캠프는 지상의 낙원이라 일컬어지는 미국 하와이에서 전문적인 어학교육과 함께 역사 및 문화체험으로 진행됩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영어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없애주고 필요성을 깨닫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폴리네시아 및 미국 현지인 문화의 차이를 이해하고, 넓은 세계를 배움으로서 어린이 청소년들이 높은 안목을 갖춘 세계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되고자 합니다.

- 참가대상: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기간: 7월 28일 ~ 8월 17일 (20박 21일)
- 참가비: 250만원 (여권·비자수수료 별도)
- 정원: 선착순 50명
- 참가신청: 3월 15일 ~ 5월 10일까지 (※미국 비자신청은 별도문의 바람)
- 장소: 하와이 한인문화원
- 주최: 현대불교신문·하와이 무량사
- 주관: 하와이 스티븐스대학교 부설 영어교육원
- 후원: 조계종포교원 진각총동리원 (재)보덕학회
- 문의: 현대불교신문 02) 722-4162~3, 016-292-1987
- 참가비 입금통장: 국민은행 006-21-0587-583 예금주: 김원우
- 준비물: 여권, 미국 비자, 학생증, 필기도구, 카메라와 필름, 속옷 3~4벌, 셔츠와 바지 2~3벌, 모자와 선글라스, 수영복과 샌들, 비옷, 수건과 비누, 자외선 차단크림, 작은가방

※ 참가학생 부모님의 경우 하와이 현장에서 공동생활을 전제로 참가가 가능합니다. 참가비는 관광비용 포함해 1주 180만원, 2주 200만원, 3주 220만원입니다.

□ 프로그램 일정표

| 일정 | 시간 | 프로그램 |
|-----------|---------|----------------------------------|
| 7월 28일(수) | 오전 8시 | 영어학교 입학식 및 오리엔테이션(원어민 선생님과 영어전문) |
| 7월 29일(목) | 09시~16시 | 영어교육, 휴식 |
| 7월 30일(금) | 09시~16시 | 한인이민의 땀서린 사탕수수농장, 자연박물관 관람 |
| 7월 31일(토) | 10시~12시 | 와이키키해변 수영, 휴식 |
| 8월 1일(일) | 10시~12시 | 하와이 친구들과 대화, 휴식 |
| 8월 2일(월) | 09시~16시 | 영어교육, 휴식 |
| 8월 3일(화) | 09시~16시 | 카할리만다린호텔 돌고래쇼 및 코닥 홀라쇼 체험 |
| 8월 4일(수) | 09시~16시 | 영어교육, 휴식 |
| 8월 5일(목) | 09시~16시 | 하와이 폴리네시아민속촌 및 공연관람 |
| 8월 6일(금) | 09시~16시 | 영어교육, 휴식 |
| 8월 7일(토) | 09시~12시 | 와이키키해변 수영, 휴식 |
| 8월 8일(일) | 10시~12시 | 하와이 친구들과 대화, 휴식 |
| 8월 9일(월) | 09시~16시 | 진주만 방문, 다이아몬드 헤드 등반 |
| 8월 10일(화) | 09시~16시 | 영어교육, 휴식 |
| 8월 11일(수) | 09시~16시 | 하와이왕국 이올라나 궁전 탐방 및 퍼레이드 관람 |
| 8월 12일(목) | 09시~16시 | 영어교육, 휴식 |
| 8월 13일(금) | 09시~16시 | 바다 물고기와 함께 하노우마베에서 수영 |
| 8월 14일(토) | 09시~16시 | 영어학교 졸업식, 휴식 |
| 8월 15일(일) | 10시~12시 | 하와이 친구들과 대화 |
| 8월 16일(월) | 09시~18시 | 화산의 신비를 눈앞에서 백아일랜드 화산성 탐방 |
| 8월 17일(화) | 10시~ | 출발 |

◁ 하와이 한인문화원 전경